

# 개념체계의 삶 지배력: 음·양의 역동적 해석\*

서 영 이\*\*

## 국문초록

이 논문은 '개념체계(conceptual system)'의 삶 지배력을 검토하고, 어떤 개념체계를 선택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의식과 삶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음을 해명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음·양 해석의 여러 유형을 검토함으로써, 개념체계가 구성원들의 가치관과 삶의 패턴 형성에 결정적임을 보이는 것이다. 이 연구는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문화적 범주화가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을 고발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유효한 개념체계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을 제기하려는 것이다.

동북아시아에서 음·양은 모든 물리적·추상적·정신적인 것들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다. 음·양은 그 자체로 객관적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끝없이 재규정되어 왔다. 사회적·문화적 가치체계에 따라 선택된 개념체계는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과 삶의 구조를 결정한다. ① 「양존음비(陽尊陰卑)」 개념체계는 음·양의 지위를 차별화하는 사유를 정당화하는 토대가 된다. 그것은 종법제에 기초를 둔 가부장적 범주화에 결정적 구조를 제공했다. ② 노자의 「존음귀유(尊陰貴柔)」 개념체계는 「양존음비」의 사유에서 은폐되었던 음의 유효성에 주목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③ 「음양균형(陰陽均衡)」 개념체계는 '음'과 '양'의 구도가 배타적 관계가 아니라, 균형과 조화의 관점에서 읽혀야 한다는 점을 함축한다. 우리는 이러한 「음양균형」 개념체계를 통해 삶의 수평적 조화와 화합을 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시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지금 여기'를 지배하는 개념체계에 대한 현실적 반성과 함께 우리의 유기체적 조건에 반하지 않는, 경험적으로 안정된 개념체계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개념체계, 지배력, 음, 양

I. 서 문	IV. 정식화된 개념체계의 영향력
II. 은유적 개념체계	V. 결 론
III. 음·양의 역동적 해석 모형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B5A07062759).

\*\* 전남대학교 철학과 강사/buscar7010@naver.com

## I. 서 론

어떤 대상을 의미화하는 방식은 규칙적이지도 확정적이지도 않다. 개념의 의미는 특정 공동체가 신뢰하는 믿음, 가치 등 공유된 ‘패러다임(paradigm)’에 강력하게 영향을 받으며, 그것을 토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모든 개념들은 사회적·문화적 전제들의 방대한 배경 안에서 형성되고 확장되면서, 우리의 생각과 살아가는 방식을 구조화한다. 그리고 개념들은 사회적 믿음과 가치에 근거를 두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유사한 성질을 가진 부류로 묶이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개념체계는 사회적·문화적 가치와 긴밀한 관계에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가변적인 것임을 함축한다. 범주화는 대상의 본유적 속성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지향에 따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구축된 사회적 범주화는 우리의 사고 형성과 삶에 결정적이다.

본 논문의 주된 목적은 ‘개념체계(conceptual system)’에 의해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음을 해명하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체험주의(experientialism)’의 은유이론에 의존해 개념체계의 본성을 드러내고, 삶에서의 개념체계 지배력을 드러내려는 시도다.<sup>1)</sup> 이를 해명하기 위해 동북아시아 철학의 대표 개념 음·양을 중심으로 하는 개념체계의 여러 모형을 검토함으로써, 그것이 우리의 사고와 삶에 결정적임을 보일 것이다. 직접적으로 지각할 수 없는 추상적 개념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전형적으로 지각 가능한 것, 즉 신체적·물리적인 것을 토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음·양은 직접 지각되지 않는, 그래서 물리적인 것의 관점에서 형성된 추상적 개념이다.

개념의 범주화는 대상의 본유적 속성이 아니라, 특정 의도를 반영한다.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특정 개념체계는 선택적으로 어떤 속성을 부각시키고 나머지 속성들을 은폐함으로써 부분적으로 구조화된다.<sup>2)</sup> 우리의 지각은 본성적으로 파편적이며, 그런 이유로 어떤 개념체계든 상대적인 객관성만 존재할 뿐이다. 예컨대, 「양-강함-선(善)-길(吉)-남성」으로 범주화된 ‘존양(尊陽)’의 개념체계는 개념다발들 간의 상관성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가치체계에 따라 구성된 결과물이다. 바꿔 말하면, 그것은 사회적·문화적 선택에 따라 「음-부드러움-선-길-여성」의 ‘존음(尊陰)’ 개념들로 범주화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존

1) 체험주의에 따르면, 인간은 신체적·물리적 활동의 반복적 형태와 규칙성을 토대로 형성된 소수의 안정된 패턴을 갖는데, 이것이 바로 ‘영상도식(image schema)’이다. 우리의 모든 사고는 이러한 영상도식을 기초로, ‘은유적 투사(metaphorical projection)’를 통해 점차 추상적 영역으로 확장된다. 이렇게 형성된 개념체계는 모든 사고의 배경을 이루며, 이로부터 모든 개별적 의미들이 산출된다. 한 사회가 특정한 개념체계를 선택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언어들은 사용자들에 의해 기능과 용도, 의미가 달라진다. 특정한 개념체계가 경험의 어떤 측면을 부각하는 순간, 그와 동시에 그 이외의 것은 은폐된다. 이는 특정 개념체계의 선택이 우리를 억압하는 사회적 실재를 창조하는 계기일 수 있음을 함축한다. 마크 존슨(지), 노양진(역), 『마음 속의 몸: 의미, 상상력, 이성의 신체적 근거』,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0, 35~38쪽 참조.

2) 범주화의 본질적 성격에 대한 해명은 서영이의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서영이는 유학의 뿌리 개념인 음·양이 생성 초기에는 ‘자연 현상과 물리적 경험을 표상하는 개념’에서, 도덕적 이원 구조를 표상하는 ‘가치론적 개념’으로, 그리고 다시 새롭게 등장시킨 초월적 존재 아래 모든 물리적인 것들을 존재하게 하는 ‘형이상학적 실체’로 정립되어 가는 것을 조망했다. 이러한 해명을 통해 서영이는 음·양이 객관적이고 확정적 의미를 갖고 있는 순수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요구, 그리고 철학적 의도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거듭할 수밖에 없는 유동적 개념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서영이, 『도덕화된 음·양의 역사』, 『범한철학』 77, 범한철학회, 2015 참조.

양이 아닌 ‘존음’의 상반된 방식으로 개념체계의 유효성을 강조한 용례가 있다는 사실은 그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개념체계는 사회가 추구하는 목적이나 의도들이 수렴된 것으로, 구성원들의 인식체계 형성에 결정적이다. 대상에 대한 ‘이해’에는 그 사회가 수용하고 있는 특정 범주체계가 개입된다. 그리고 대상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특정 범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외의 것을 은폐·축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들과 구분되는 본 연구의 특징은 1) 음·양이 사회적·문화적 열망을 반영한 개념체계라는 것을 해명함으로써, 통시적 관점에서 ‘왜 개념체계가 확정적일 수 없는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2) 음·양의 개념체계는 유기체의 변형을 염두에 둔 고도로 추상화된 은유적 산물이며, 특정 의도가 개입된 이상화의 산물임을 보이는 것이다. 그것은 세계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일한 개념체계가 있다는 것은 환상일 뿐이며, 다만 어떤 개념체계든 상대적인 객관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음·양에 대한 다른 해석체계의 모형을 제시할 것이다. 3) 정식화된 개념체계의 사회적 지배력을 검토하고, 지금 우리의 삶에 유효한 범주체계에 대한 반성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려는 것이다.<sup>3)</sup>

본 연구 주제의 창의성은 우리 삶의 구조를 결정하는 개념체계의 지배력을 환기시키는 데 있다. 우리의 인식이 외적 대상의 객관적 구조가 아니라 우리의 개념체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체험주의적 견해를 받아들이면, 세계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으로 특징지어지는 인간의 인식과 활동은 사회적·문화적 개념체계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시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지금 여기’를 지배하는 개념체계에 대한 현실적 반성과 함께 우리 앞에 펼쳐진 다수의 대안적 개념체계들 중 우리의 유기체적 조건에 반하지 않는 ‘경험적으로 안정된’ 개념체계에 대한 시각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3) 본 연구와 관련된 음·양 연구는 두 유형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음·양의 체계와 속성을 분석한 연구들로 그레이엄(A. C. Graham), 안효성, 김영식의 연구가 있다. 이들의 연구는 주로 음·양이 무엇을 상징하며, 그 속성이 무엇인지, 개념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들의 관계를 무엇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다루었다. 그레이엄은 구조주의적 방법론에 의존해 상보적·상관적 관계에 있는 음·양과 그와 유사한 맺구적 언어들의 확장방식을 풍부한 사례들과 함께 매우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 안효성은 음·양이 인간의 상상력을 작동시킨 몇 가지 원형들 중에 가장 근원적인 원형이라고 보고, 낮/밤, 흑/백, 선/약, 땅/하늘, 물/불 등을 원형에 근거한 상상력의 산물로 본다. 김영식은 주희의 자연철학을 중심으로 음양오행의 체계와 속성을 분석했다. 음양오행의 체계는 자연으로부터 비자연으로 확장된 것이며, ‘자연’ 영역에서의 음양 연관들은 음양 체계의 사용을 합리화하는 역할만 했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 유형은 음양론의 현재적 유효성에 주목한 탐구로 김혜숙, 김미영, 최영진, 김세서리아, 이천승의 연구가 있다. 이들의 연구는 음양론이 함축한 불평등의 구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면서도, 음양론의 특정한 구조가 현재적 유용성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김혜숙은 음양오행론을 동아시아 문화논리로 규정하고 이를 여성의 관점에서 해체하고 재해석한다. 김미영은 주자학적 이념체계를 음양론과 공자론을 통해 규명, 가부장적 권 위주의의 원천은 공(公)·의(義)에 의한 사(私)·리(利)의 억압에 있었다고 진단한다. 이를 지양하기 위해서는 공·사 관계와의 리 관계의 재구성을 위한 다각도의 반성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최영진은 젠더에 대한 유교의 담론이 음/양의 이미 지를 성에 투사함으로써, 양적 존재(남)의 우월성과 음적 존재(여)의 종속성이라는 위계적 질서를 합리화시켰다고 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음과 양을 대등하게 보는 ‘시중(時中)’이라는 중(中)의 논리가 있으며, 평등의 관계로 재정립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자생적인 이론적 기반을 유교의 음양론과 중의 논리에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김세서리아는 음양 개념이 차이 아니라 차별, 우열의 관점으로 해석되고 실체화되어 왔음을 비판함으로써, 음양론을 차이의 철학으로 정립시키려 한다. 이천승은 ‘감응’의 관점에서 음양론을 이해하고, 자연과 인간이 서로 감응할 수 있는 바탕 위에서 공존의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본다. A. C. 그레이엄(저), 이창일(역), 『음양과 상관적 사유』, 수원: 청계, 2001; 안효성, 『음양이론의 상징적 상상력』, 『중국철학』 14, 중국철학회, 2006; 김영식, 『주희의 자연철학』, 서울: 예문서원, 2005; 김혜숙, 『신음양론: 동아시아 문화논리의 해체와 재건』,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4; 김미영, 『陰’에 부과된 私적 특성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주자학의 가족윤리를 중심으로』, 『철학』 72, 한국철학회, 2001; 최영진, 『젠더에 대한 유교의 담론』, 『사회사상과 문화』 8, 동양사회사상학회, 2003; 김세서리아, 『차이의 철학으로서의 음양론과 ‘차이-사이(관계짓기)’의 변증법』, 『시대와 철학』 17,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6; 이천승, 『음양감응을 통해 본 유교의 자연과 인간에 대한 이해』, 『동양철학연구』 54, 동양철학연구회, 2008.

## II. 은유적 개념체계

개념체계는 우리의 실재적 경험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체적 생존, 더 나아가 인간적 번영을 비롯해서 사회적 지향 등을 기반으로 구성된다. 개념체계는 우리의 인식과 사고, 그리고 삶을 형성하는 결정적 형식이다. 인식 내용이 외적 대상의 객관적 구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개념체계에 의해 구성된다는 것이다.<sup>4)</sup> 그리고 우리의 일상적 개념체계는 은유적으로 확장되며, 그렇게 구조화된 개념체계의 범주들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결정력을 갖는다. 결국 우리는 외적 대상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개념체계에 의존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한다.

인간의 두뇌는 분류와 관련된 정보의 사회적 전달에 맞추어 진화해 왔다. 그 결과로 우리는 카테고리 세계를 이해하고, 그렇게 이해한 것을 서로 공유하려는 뿌리 깊은 욕구를 갖고 태어났다.<sup>5)</sup>

우리가 무엇인가를 느낄 때면, 그 감각지각은 대번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범주들 속으로 들어간다.<sup>6)</sup>

1980년대 레이코프와 존슨(G. Lakoff and M. Johnson)의 주도로 출발한 체험주의는 개념체계 형성에 대한 중요한 관점을 제공한다. 개념체계란 “현재와 같은 유형의 존재인 우리 자신과 우리가 물리적·문화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의 산물”<sup>7)</sup>이다. 개념체계는 단순히 우리 자신과 분리된 순수한 개념들의 ‘추상적 그물망’, 혹은 완결된 형태의 고정된 모형이 아니라, 인간이 세계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형성되고, 변화해 간다. 그것은 우리의 개념화 방식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며, 동시에 지속적인 개념화 과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sup>8)</sup>

체험주의는 인지과학의 경험적 증거들을 토대로 개념체계의 대부분이 은유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음을 해명한다. 은유의 본질은 한 종류의 사물을 다른 종류의 사물의 ‘관점에서(in terms of)’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이다.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는 개념들은 단순히 지성의 문제가 아니다. 개념은 우리가 지각하는 것, 우리가 이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식 등을 구조화한다. 우리의 인식은 대부분 은유적으로 확장된다. 은유적 개념은 우리에게 어떤 개념의 한 측면(예: 논쟁의 전투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도록 함으로써 그 은유와 일치하지 않는 그 개념의 다른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방해(은폐)한다. 개념체계가 은유적으로 구성된다는 관점을 받아들이면,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개념의 의미, 합리성은 있을 수 없다. 특정 개념에 주어진 은유적 확장은 경험의 특정한 측면을 부각하거나, 정합적인 것으로 만든다.<sup>9)</sup>

4) 노양진, 「개념체계의 신체적 기반」, 『몸·언어·철학』, 파주: 서광사, 2009, 279~280쪽.

5) 알렉스 라이트(지), 김익현·김지연(역), 『분류의 역사』, 서울: 디지털미디어리서치, 2010, 53쪽.

6) 조나 레러(지), 최애리·안시연(역), 『프루스트는 신경과학자였다』, 서울: 지호, 2007, 129쪽.

7) G. 레이코프·M. 존슨(지), 노양진·나익주(역) 『살으로서의 은유』(수정판), 서울: 박이정, 2006, 214쪽.

8) 노양진, 「의미와 의미 지반」, 『몸·언어·철학』, 281~297쪽 참조.

은유적으로 확장된 개념체계는 우리를 억압하는 사회적 실재를 창조하며, 미래 행위의 지침이 될 수 있다. 이상의 인지과학적 통찰은 인간이 어떻게 세계를 지각하고 경험하는지, 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믿으며, 어떻게 우리 삶을 계획하는지에 대한 유효한 단초를 제공해 준다.

동북아시아에서 음·양은 우리가 지각하고 상상하는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결정적 개념체계로 인식되어 왔다. 음·양이라는 추상적 개념이 함축하는 것은 자연 세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용자의 의미화 작용’을 통해 결정된다. 음을 유용한 것으로 정의하든 양을 유용한 것으로 정의하든, 혹은 음·양의 조화에 유효성을 부여하든 그것은 사용자의 의도와 지향에 따라 전혀 다른 세계관을 형성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음·양의 의미가 확정적인 것으로 주어지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고대로부터 사회체제를 뒷받침해왔던 유학의 음·양 개념 변천사를 검토해보면, 음·양의 범주화가 전형적으로 대상 자체의 속성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사회적·문화적 맥락과 관련해서 끝없이 재규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햇볕의 유무를 의미했던 음·양 개념이 전국시대에 와서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두 개의 원리로 설명되면서 존재론적 의미를 함축했다. 한대의 음·양은 가치론적 개념으로, 그리고 다시 모든 물리적인 것들을 존재하게 하는 형이상학적 실체로까지 이해되었다. 한대의 음·양 개념은 송대 성리학적 이론 안에서 보다 확실히 공고화되면서 ‘양존음비(陽尊陰卑)’를 고착화하는 방향으로 체계화되었다. 음·양은 차별과 우열의 관점으로 이해되었고, 더 이상 음의 독자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참인 진술로 주장되는 양존음비의 주자학적 개념체계는 조선왕조 오백년간 우리에게 진리로 인식되었고, 사회의 계급적 체계를 구축하는데 결정력을 가졌다. 결국 특정한 개념체계는 사회적·문화적 열망을 반영한 결과물로, 시·공간적 맥락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음이 드러난다.

### Ⅲ. 음·양의 역동적 해석 모형

특정 사회는 사회적·문화적 지향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정한 개념체계를 유포함으로써 개인의 의식을 통제한다. 권력 대상인 몸은 주류를 이루는 사회적 범주에 의해 구분되고 통제되며 재생산된다. 예컨대, 특정 사회에서 여성을 연약함·수렴·사약함·비천함과 유비시킬 때, 여성 안의 강함·발산·선량함·존귀함의 요소는 은폐된 채로 여성의 이미지는 고착된다. 사회적 범주들은 실재하는 것의 일면적 차이를 과장되게 부각시킴으로써, 존재가 갖는 또 다른 국면들을 은폐한다. 사회적 범주들은 구체적으로 실현해야만 하는 ‘합리성’을 남성 중심의 개념체계로 구축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의식과 사고를 지배한다. 이 점에서 개념체계는 ‘특정 의도가 개입된 고도로 추상화된 이상화(idealization)의 산물’이라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음·양 해석이 다른 세 유형의 개념체계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는 특정 사회에서 선택한 개념체계가 있으며, 이 외에도 그것과 전혀 다른 개념체계가 존재할 수 있음을 보이려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9) G. 레이코프·M. 존슨, 『삶으로서의 은유』(수정판), 24~25·31·265쪽 참조.

개념체계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무한히 열려 있음을 보이려는 것이다.

## 1. 「양존음비(陽尊陰卑)」 개념체계

「양존음비」는 동북아시아 사회의 주된 개념체계로 자리 잡았다. 음·양 개념의 가치론적 대비는 「상진」 「단진」에 처음 보인다. 「소인은 음/군자는 양」으로 대비된 것이다. 음·양 개념의 가치론적 대비가 본격적으로 사회적 담론을 반영한 것은 『춘추번로』부터다. 동중서는 「귀양천음」 「양덕음형」 「양존음비」 등의 은유적 이해를 통해 음·양의 지위를 차별화한다.<sup>10)</sup> 그는 「양은 귀한 것/음은 천한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음·양을 가치론적으로 대비시킨다. 그는 또 음·양의 관계를 「양은 위/음은 아래」로 구조화함으로써 군신, 부자, 부부 등의 수직적 관계의 근거로 삼는다. 이때 「음은 양의 보조자」로 규정된다. 동중서에게 남자는 비록 지위가 비천하다고 해도 모두 양이고, 여자는 비록 고귀하다고 하더라도 모두 음이다.<sup>11)</sup> 그는 또 「양은 덕교/음은 형벌」 은유로 음·양의 「사회적 역할」을 대비시킨다.<sup>12)</sup> 동중서로부터 시작된 음·양 개념의 비자연적 영역으로의 확장은 사회적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계기가 된다. 남성이 힘의 소유자라는 사회적 정의는 남성들의 힘이 「자연화되는 것」, 즉 자연 질서의 일부분으로 인식되는 것을 의미한다. 남성의 우월성에 대한 신념과 그러한 신념에서 비롯되는 억압적인 관행은 자연스럽게 행해진다.

동중서의 음·양에 대한 개념체계는 동북아시아 사회의 종법제에 기초를 둔 가부장적 범주화에 결정적 토대를 제공했다. 이러한 시각은 주희에 와서 한층 더 이분법적으로 고착되었다. 자연의 대대(對待), 유행(流行), 상보(相補), 상근(相根)의 상호작용을 표상하던 음·양이 양의 존재론적 우위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이분법적 대립관계를 표상하는 가치론적 개념들과 유비되어 개념체계가 확장되었다. 가치체계의 구도를 표상하는 음·양은 절대적인 극성을 내포하는 배타적 대립관계를 함축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이론 내부의 비정합적 구도를 의미한다. 자연현상을 표상하던 음·양이 존재론적으로는 서로 없어서는 안 될 상관관계에 있으면서, 동시에 가치론적으로는 음은 양의 지위를 해치는 것이니 양과 나란히 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는 「양의 선택적 강조」를 의미한다.

하늘과 땅 사이에 '양립'하는 리는 없다. 음이 양을 이기지 않으면 양이 음을 이기는 것이다. 이와 같지 않은 것이 없고, 이와 같지 않은 때가 없다.<sup>13)</sup>

좋음(好)/나쁨(不好), 선량함(淑)/사악함(慝), 존귀함(尊)/비천함(卑), 길함(吉)/흉함(凶) 등은 각각 양과 음으로 유비되며, 「양을 보존하고 음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선택적 강조가 이루어진다. 그것은 군신, 부자, 부부 등의 수직적 구조의 확립으로 나아간다. 그것은 신화와 자식, 아내에 대해 군주, 아버지, 남편의 통제와

10) 서영이, 「도덕화된 음·양의 역사」, 19~20쪽 참조.

11) 『春秋繁露』 11卷, 「陽尊陰卑」.

12) 앞의 책, 같은 곳.

13) 『朱子語類』 卷65, 「易一·綱領上之上·陰陽」, 1604쪽.

역압의 자연스러운 계기가 된다. 높은 지위인 양과 낮은 지위인 음이 동등하지 않은 것처럼, 가정에서는 어머니가 아버지와 동등하지 않게 된 것이다.<sup>14)</sup> 이러한 대비는 낮/밤, 더위/추위, 땀/굶힘, 발산/응집 등의 자연현상으로부터 비자연적인 은유적 확장을 이룬 것으로, 특정 의도가 개입된 유비로 보인다. 이들은 대대, 유행, 상보, 상근의 상호작용의 관계가 아니라, 양 중심의 비대칭적 음·양 대비이기 때문이다. 이때의 양은 ‘보존’되어야 할 것이고, 음은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 측면에서 ‘양 중심의 개념체계’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론체계는 생물학적인 몸이 사회적 불평등의 표상이라는 사회적 논의로 나아간다. 남성에 대한 여성들의 예측은 사회적 범주화를 통해 결정된 것이다. 주희에 따르면, 남성의 우월성과 여성 종속의 불가피성은 생물학적 몸의 다름에 근거한다. 주희에게 몸은 사회적 우월과 열등을 정당화하는 생물학적 근거다.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인 차이는 사회적 지위체계에 결정적 계기로 간주된다. 여성은 남성과 다른 열등한 존재로 규정됨으로써 제약된 삶을 살아야만 했다. 또 여성들은 합리성을 부패시킬 위험을 태생적으로 갖기 때문에 사적(私的) 영역으로 제한된 반면, 오직 남성들만이 공적(公的) 생활에 적합한 몸을 갖는다고 주장된다. 몸의 생물학적 차이가 특정 권리를 제한하는 삶의 모습을 양산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유가에서 이룬 음·양의 은유적 확장은 종속적 구조를 정당화하는 토대로 이해된다.

## 2. 「존음귀유(尊陰貴柔)」 개념체계

백서본 『노자(老子)』에는 ‘부음이포양(負陰而抱陽)’이란 구절이 있다.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는다. 만물은 음을 등지고 양을 껴안어(負陰而抱陽), 그 가운데의 기운을 조화롭다고 여긴다(中氣以爲和). […] 그러므로 강하고 굳 세기만 한 사람은 옳게 죽지 못한다. 나는 그것을 배움의 근본으로 삼을 것이다.<sup>15)</sup>

여기에 쓰이는 음·양의 해석은 의견이 분분하다. 관점초묘죽간본에는 ‘부음이포양(負陰而抱陽)’이라는 글귀는 없다. 다만, 기론적 사유가 유행했던 전국 말, 진·한시기에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백서본 『노자』의 음·양은 상대적 기운을 표상하는 개념으로 쓰였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노자』에서 음과 양이라는 개념은 거의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암컷/수컷, 부드러움/단단함, 유약함/강함 등의 상대성을 표상하는 유사 개념들로 그 구체적인 의미와 함축을 유추해 볼 수 있다.

14) 『朱子語類』 卷68, 「易四·乾上」, 1638쪽 참조.

15) 『老子』 42장. 이 논문에서 『老子』와 관련된 인용문은 세 권의 주해본에 의존한다. 관점초묘죽간본 『노자』를 주해한 최재묵의 『노자』, 백서본 『노자』를 저본으로 삼은 김홍경의 『노자: 삶의 기술, 늙은이의 노래』, 그리고 백서 『노자』를 중심 텍스트로 삼고, 번역은 왕필본을 저본으로 삼은 이석명의 『백서 노자: 백서본과 관점본·왕필본의 텍스트 비교와 해석』이 그것이다. 『노자』의 장(章) 표기는 통행본에 근거를 둔다. 김홍경, 『노자: 삶의 기술, 늙은이의 노래』, 서울: 들녘, 2003; 이석명, 『백서 노자: 백서본과 관점본·왕필본의 텍스트 비교와 해석』, 서울: 청계, 2003; 최재묵, 『노자』, 서울: 을유문화사, 2012.

## (1) 「양의 필요조건, 음」

노자는 ‘음-암컷-부드러움-연약함’과 ‘양-수컷-단단함-강함’의 양 기운이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기(中氣)’를 유지하는 것을 ‘조화로움(和)’으로 여긴다(中氣以爲和). 그들은 배타적 대립관계에 있지 않다. 노자는 “강하고 굳세기만 한 사람은 옳게 죽지 못한다”고 강하게 말한다. 어느 한 곳에 치우치는 편향이 온당치 않다고 보는 것이다. 살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강하고 싶은 것, 높아지고 싶은 것, 아름다워지고 싶은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이다. 그러나 노자는 모든 것은 ‘돌아간다’는 사실, 즉 변화한다는 사실을 직시했고, 현실을 지배하는 가치가 절대적일 수도 영원할 수도 없음을 지적했다.

돌아가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고 유약한 것이 도의 쓰임이다.<sup>16)</sup>

천하가 모두 아름다운 것이 아름다운 줄만 알면 이것은 추악한 것이고, 모두 선만을 알면 이것은 선하지 않은 것이다. 있고 없음은 서로를 낳고 어렵고 쉬움은 서로를 만들며 길고 짧은 것은 서로를 드러내고, 높고 낮은 것은 서로를 보이게 하고, 악기 소리와 목소리는 서로 조화를 이루고, 앞과 뒤는 서로를 따르니 항상 그런 것이다.<sup>17)</sup>

이렇듯 있고 없음은 서로를 낳고, 높고 낮은 것은 서로를 드러낸다. 영원한 것은 없으며, 돌아가는 것이 필연적인 도의 쓰임이다. 노자는 부드러움, 유약함, 낮음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한쪽으로만 정도되어 있는 유가의 가치 지향을 비판한다.

「양존음비」 개념체계에서 배제되었던 ‘음’의 범주체계는 노자에 의해 ‘양’ 계열의 가치들을 얻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이해된다. 노자에 따르면, 「수컷-깨끗한 것-흰 것」을 알면서도 「암컷-더러운 것-검은 것」을 지키지 않으면 천하의 모범, 군왕이 될 수 있다.<sup>18)</sup> 「수컷-깨끗한 것-흰 것」은 「암컷-더러운 것-검은 것」 등의 가치를 인정하고 함께할 수 있어야만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 진정한 강함을 얻기 위한 충분조건은 바로 부드러움과 연약함 등을 포섭하는 일 뿐이다. 이렇듯 『노자』의 ‘양’ 범주는 ‘음’ 범주의 가치들을 필요로 한다. 낮게 처하는 것, 뒤로 물러서는 것, 나서지 않는 것이 결국 위, 앞에 설 수 있는 결정적 계기이기 때문이다.

강과 바다가 모든 골짜기의 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아래로 잘 처하기 때문이니 그 때문에 모든 골짜기의 왕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성인은 백성 위에 서려고 할 때는 반드시 그 말을 낮추고, 백성 앞에 서려고 할 때는 반드시 그 몸을 뒤로 한다.<sup>19)</sup>

16) 『老子』 40장.

17) 『老子』 2장.

18) 『老子』 28장 참조. 수컷을 알면서도 암컷을 지키면 천하의 계곡이 된다. 천하의 계곡이 되면 언제나 덕이 떠나지 않는다. 덕이 떠나지 않으면 어란이므로 되돌아간다. 깨끗한 것을 알면서도 더러운 것을 지키면 천하의 골짜기가 된다. 천하의 골짜기가 되면 언제나 덕이 축하다. 덕이 축하면 통나무로 돌아간다. 흰 것을 알면서도 검은 것을 지키면 천하의 모범이 된다. 천하의 모범이 되면 언제나 덕이 어그러지지 않는다. 덕이 어그러지지 않으면 무극으로 돌아간다. 통나무가 흩어지면 그릇이 되고 성인이 쓰이면 군왕이 된다.

귀해지려면 반드시 천함을 근본으로 삼아야 하고, 높아지려면 반드시 낮음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이 때문에 후왕은 스스로를 일컬어 고(孤)·과(寡)·불곡(不穀)이라고 하니, 이것이 천함의 근본됨이 아니겠는가?<sup>20)</sup>

이렇듯 『노자』는 존음의 행위방식이 아래의 ‘위’, 뒤의 ‘앞’, 모든 무리의 ‘왕’이 되는 길임을 강조한다. 스스로를 낮추고, 음의 행위방식을 취하는 것은 큰 것, 높은 것을 얻기 위한 공리적 수단인 셈이다.

## (2) 「유약함의 강함」

노자는 과감하게 유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고 말한다.

큰 나라는 아래로 흐르는 물이니, 천하의 암컷이며 천하가 모이는 곳이다. 암컷은 항상 고요함으로 수컷을 이기니, 고요하기 때문에 마땅히 아래로 처한다. 큰 나라가 작은 나라 아래에 처하면 작은 나라를 취할 수 있고, 작은 나라가 큰 나라 아래에 처하면 큰 나라에 용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는 아래로 처하여 취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아래로 처하여 용납될 수 있다.……무릇 모두 원하는 것을 얻은 것이니, 큰 나라가 마땅히 아래로 처해야 한다.<sup>21)</sup>

장차 움츠러들게 하려면 반드시 먼저 벌리게 하고, 장차 약하게 하려면 반드시 먼저 강하게 하며, 장차 없애려면 반드시 먼저 높이고, 장차 빼앗으려면 반드시 먼저 줄 것이다. 이것을 미묘한데서 밝다고 하니, 유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법이다.<sup>22)</sup>

유약함과 부드러움을 취하는 것은 그것만이 진정으로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노자는 “천하에 물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이 없지만 굳세고 강한 것을 공략하는 데는 그보다 나은 것이 없으니 그 성질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부드러움이 굳셈을 이기고 약함이 강함을 이기는 것은 천하가 다 알지만 능히 행하지는 못한다”<sup>23)</sup>라고 말한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부드럽고 약한데, 죽고 나면 뻣뻣하고 딱딱해진다. 만물 초목이 태어날 때는 부드럽고 약한데 죽고 나면 마른다. 그러므로 딱딱한 것은 죽음의 무리고, 유약하고 미세한 것은 삶의 무리라고 한다. 병사가 강하면 이기지 못하고 나무가 강하면 부러지게 된다. 강대한 것은 아래에 처하고, 유약하고 미세한 것은 위에 거한다.<sup>24)</sup>

19) 『老子』 66장.

20) 『老子』 39장.

21) 『老子』 61장.

22) 『老子』 36장.

23) 『老子』 78장.

24) 『老子』 76장.

이러한 『노자』의 ‘존음’의 경향성은 불평등한 ‘존양’의 사회에 대한 여성적 가치의 강조라는 점에서 획기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자의 이러한 경향성을 단순히 친여성주의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로 보인다.<sup>25)</sup> 첫째, 노자의 「존음귀유」는 「양존음비」에 대한 해체적 사유임에 분명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진정한 양강(陽剛)을 얻기 위해 근본으로 삼아야 하는 공리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리 순수해 보이지는 않는다. 둘째, 노자의 궁극적 관심은 음·양의 세계를 넘어선 절대적 가치, 즉 ‘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도’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는 경험적인 것을 벗어나 있는 상상적 개념이다. 이러한 난점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양존음비」 개념체계에서 은폐되었던 「존음귀유」의 개념체계를 도출하고, 음의 유효성에 주목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노자의 사유는 중요성을 갖는다.

### 3. 「음양균형(陰陽均衡)」 개념체계

#### (1) 「양 속 음, 음 속 양」

우리의 실제 세계에서 어떤 대상이나 상황, 변화 양상 등을 어느 하나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거기에는 수많은 양상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세계에 순수한 양의 국면, 혹은 순수한 음의 국면이 존재하지 않음을 말해준다. 『주역』의 64개의 괘는 외부 세계의 형세, 개인이 처한 상황, 그리고 그것들의 변화 양상 등이 어느 하나로 완벽하게 정리될 수 없음을 선명히 보여준다.

『주역』의 태(泰)괘와 비(否)괘는 우리가 경험하는 일의 형세들이 「양 속 음, 음 속 양」의 양상임을 보여준다. 태괘는 풍요와 안정의 태평성대를, 비괘는 정체와 불통의 상태를 상징한다. 그러나 태괘와 비괘는 영원한 태평성대, 혹은 영원한 정체와 불통을 말하지 않는다. 풍요와 안정에는 쇠락과 분열의 씨앗이, 마찬가지로 정체·불통에는 소통과 진보의 계기가 잠재되어 있다. 그래서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태괘의 여섯 번째 효사는 쇠락의 시기가 다가왔음을, 그리고 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것을 조언한다.

성(城)이 무너져 해자(隍)로 돌아간다. 군대를 쓰지 말라. 읍(邑)으로부터 명을 고할 것이니, 바르더라도 부끄럽다.<sup>26)</sup>

마찬가지로 비괘의 극한의 상황은 항상 새로운 혁신의 길을 예정하고 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천함, 나쁜 일, 실패, 비생산적인 것, 무의미한 존재 등을 경험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들은 이미 고귀함, 좋은 일, 성공, 생산적인 것, 유의미한 것 안에 잠재태로 존재하는 것이다.

25) 김시천은 『노자』에 대한 도식적 규정, 즉 ‘노자=여성주의적 철학’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한다. 김시천은 『백서노자』와 함께 발굴된 문헌을 통해 『노자』는 오히려 반여성주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김시천은 주희의 논지를 따라 『노자』의 ‘부드럽고 약함’이 ‘강함’을 이긴다는 메시지가 음흉한 술수이며 다른 사람의 뒤통수를 치는 교묘한 술책이라고 비판한다. 그러한 이유로 김시천은 『노자』에서 ‘여성적 보살핌 혹은 돌봄’의 윤리가 나올 수 있는지 반문한다. 김시천, 「도가와 여성성: 『노자』에서 ‘돌봄’의 개념은 가능한가」, 『한국여성철학』 8, 한국여성철학회, 2007, 1·23쪽 참조.

26) 『周易』 「泰·上六」.

기제(既濟)괘, 미제(未濟)괘를 통해서도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 「양 속 음, 음 속 양」의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다. 완성을 상징하는 기제괘는 각각의 효가 완벽하게 득정(得正)한 모습이다. 우리는 영원한 성공과 풍요를 꿈꾸지만, 그것은 그저 꿈일 뿐이다. 그래서 기제괘의 괘사는 ‘초길종난(初吉終亂)’을 말한다. 완벽한 형상을 이룬 기제괘는 쇠락의 조짐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네 번째 효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배가 뜬이 있어 물이 새어) 젖음에 옷과 헌옷을 장만해 두고 종일토록 경계한다.<sup>27)</sup>

이에 비해 미완성을 상징하는 미제괘는 각 효들이 완벽하게 부정(不正)한 모습을 이루니, 불완전의 극치로 보인다. 그러나 미제괘는 ‘끝이 곧 새로운 시작(終則有始)’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괘는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지만, 형통함의 계기를 담고 있는 것이다. 다섯 번째 효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바르므로 길(吉)하여 뉘우침이 없으니, 군자의 빛남이 진실함이 있다. 길하다.<sup>28)</sup>

이렇듯 음·양으로 유비된 좋음/나쁨, 존귀함/비천함, 성공/실패, 길함/흉함 등 우리 삶의 여러 국면들은 양면적 가치를 내재한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상황과 변화의 형세 속에서 「양 속 음, 음 속 양」의 은유 체계를 도출할 수 있게 된다.

「양 속 음, 음 속 양」의 은유적 구도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고정되어 있지 않음을 전제한다. ‘사물이 극단에 이르면 반드시 돌아간다(物極必反)’는 언설은 우리가 경험하는 우주의 모든 만물은 변화의 과정 속에 있으며, 오직 변화한다는 사실만이 불변할 뿐임을 잘 설명해준다. 사물이나 일의 형세는 흥망성쇠를 반복하게 마련이다. 해와 달, 추위와 더위, 굶힘과 편, 응집과 발산 등 자연의 일정한 패턴은 대대의 연속적 상관성을 잘 보여준다. 만사만물의 형세와 상황은 자연의 일정한 변화 패턴과 유사하게 끊임없이 역동적이고도 순환적인 변화의 과정 속에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어떤 대상, 어떤 사태도 고정적이거나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게 해준다. 아울러 「양 속 음, 음 속 양」의 은유적 구도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나쁨, 비천함, 실패, 흉함을 만나더라도 그것들을 좋음, 존귀함, 성공, 길함 등과 대등한 차원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 (2) 「음양조화」

『주역』의 건·곤은 우주 변화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두 힘으로 이해된다(生生之謂易). 건·곤은 서로 대립하면서도 의존한다. 이러한 관계가 보여주듯, 존재의 모든 국면이 「양 속 음, 음 속 양」의 개념체계로 읽혀지는 않는다. 건·곤은 어느 한 쪽이 다른 한쪽을 함축하고 있지 않다. 건·곤이 상징하는 군신, 부자, 부부 등의 관계도 역시 대립적이면서 동시에 상호 의존적이다. 그들은 어느 한 쪽을 위해 다른 한 쪽이 통제되거나 희생을 감수해야만 하는 배타적 대립관계가 아니다. 공동선을 위해 직분과 기능의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

27) 『周易』 「既濟·六四」.

28) 『周易』 「未濟·六五」.

를 조절하고 조화시켜야 할 관계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의 관계는 「음양조화」의 은유적 구도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규(睽)괘는 공통의 목적을 위해 분열을 넘어 소통과 통합을 모색한다.

천지가 다르지만 그 일이 같으며, 남녀가 다르지만 그 뜻이 통하며, 만물이 다르지만 그 일이 같으니, 규(睽)의 때와 씀이 크다.<sup>29)</sup>

각기 다른 직분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차이는 상생을 위해 인정하고 수용하며 조정해야 할 엄연한 현실이다. 대동을 위해 함께 조화할 때, 상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읽기는 군신, 부자, 부부 등의 관계를 상하 수직적 권위체계로 규정하게 한 「양존음비」·「부양억음」의 사유와 구분된다. 한대 이후에 뚜렷해진 「양존음비」·「부양억음」의 개념체계는 지위의 '다름'을 '차별'로 만드는 불공정한 원칙을 제공했고, 사회적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당위적 규범 체계로 삼았기 때문이다. 가부장적 사회의 합리성은 사실의 세계와 상관없이 사회적·문화적 가치에 따라 선택된 개념체계로부터 형성된다. 대상에 대한 인식 내용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외부의 자연 세계, 즉 사실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개념체계에 의존하여 형성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개념체계의 범주들을 통해 세계를 지각하고 이해하며 경험하는 것이다. 결국 군신, 부자, 부부의 관계에서 「양존음비」·「부양억음」의 개념체계 적용은 특정 의도의 개입임이 드러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실의 영역과 당위의 영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사실의 영역에서 「양존음비」·「부양억음」의 특정 개념체계를 선택한다는 것은 정치적 불평등과 수직적 권위체계를 구성원들의 삶과 의식 속에 새기려는 것이다.

그러나 군신, 부자, 부부의 관계는 어느 한 쪽의 성공이 다른 한 쪽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 군신, 부자, 부부의 관계 말고도, 직업의 귀천, 지위의 존비(尊卑), 이상/현실, 창조성/수용성, 능동성/수동성 등의 짝들은 적절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짝 개념들이다. 우리는 그들이 서로를 필요로 하며, 상호 보완적인 관계임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 IV. 정식화된 개념체계의 영향력

개념체계는 사회적·정치적 실재를 구성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실재는 우리의 인식과 삶의 방식, 타인과 관계 맺는 방식 등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사회는 행동규칙과 감정통제 양식을 포함하는 개념체계를 의도적으로 유포함으로써 행동규범에 대한 개별자의 내면화를 시도한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이 획득해야만 하는 영구적인 하나의 성향체계로 이해된다. 따라서 우리가 참이라고 믿고 있는 대부분의 개념체계들은 그 사회에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의 특정 의도에 의해 구조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29) 『周易』 「睽」 「彖傳」.

한 개인의 자아 정체성은 ‘그 자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된다. 우리는 개념 체계에 의해 체계적으로 훈련되고 훈육되며 사회화된다. 우리의 몸은 개별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사회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행위로부터 철저히 소외된다. 개인들은 훈육을 통해 ‘내적’ 몸을 억제하는 일, 사회적 공간에서 ‘외적’ 몸을 표현하는 일을 통해 지속적인 사회화 과정을 거친다. 특정 행위에 대한 징계는 단순히 피지배자를 통제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피지배자를 사회적으로 형성하기 위한 중요 기제로 작용한다. 이렇듯 개념체계에 의해 형성된 우리의 의식과 삶은 사회적·문화적 정당화를 위해 끊임없이 규제되고 재조직되는 것이다.

## V. 결 론

이 논문은 사회가 선택한 개념체계에 의해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했다. 이를 해명하기 위해 ‘음’·‘양’ 개념의 역동적 확장방식의 여러 유형을 보임으로써 사회가 어떤 개념체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삶의 구조가 전혀 다른 패턴으로 전개될 수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문화적 범주화가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을 고발하는 것이기도 하며, 궁극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유효한 개념체계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을 제기하려는 것이다.

동북아시아에서 음·양은 모든 물리적·추상적·정신적인 것들을 설명하는 중요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다. 음·양은 그 자체로 객관적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미화 작용을 통해 이해되고 체계화되었다. 음·양 개념의 변천사는 역동적 해석체계를 가지며 시대와 사회적·문화적 맥락과 관련해서 끝없이 재규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논문은 세 유형의 음·양 해석체계를 검토함으로써, 사회가 어떤 개념체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구성원들의 대상에 대한 인식과 삶의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회적 선택이 열려 있음을 보여준다.

- 1) 「양존음비」는 동북아시아 사회가 선택한 주된 개념체계다. 동중서는 「귀양천음」 「양덕음형」 「양존음비」 등의 은유적 구조로 음·양의 지위를 차별화한다. 음·양 개념체계는 주위에 와서 한층 더 이분법적으로 고착화되면서 동북아시아 사회의 종법제에 기초를 둔 가부장적 범주화에 결정적 토대를 제공했다. 좋음/나쁨, 선량함/사악함, 존귀함/비천함, 길함/흉함 등은 각각 양과 음으로 대비되며, 그것은 군신, 부자, 부부 등 사회적 구조의 통제와 억압의 이론적 대비로 나아간다. 몸의 생물학적 다름이 특정 권리를 제한하는 삶의 모습을 양산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유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음·양의 은유적 확장은 종속적 구조를 정당화하는 토대로 이해된다.
- 2) 노자의 「존음귀유」 개념체계는 「양존음비」의 사유에서 은폐되었던 음의 유효성에 주목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사유의 전환이라 평가받을 수 있다. 이는 「양존음비」에 대한 해체적 담론임에 분명해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진정한 강함을 얻기 위한 공리적 수단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역시 특정 의도의 산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음귀유」는 「양존음비」의 개념체계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 3) 「음양균형」 개념체계는 ‘음’과 ‘양’의 구도가 배타적 관계가 아니라, 균형과 조화의 관점에서 입혀야 한다는 점을 함축한다. 「양 속 음, 음 속 양」의 은유는 우리의 실제 세계가 갖는 다층성을, 「음양조화」의 은유는 공동선을 위해 직분과 기능의 차이를 인정하고,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잘 표상한다. 태평성대의 시기에 불통의 상태가 잠재되어 있듯, 사실의 세계에서 음·양은 서로를 함축하는 포함관계에 있다. 또한 음·양 어느 한 쪽을 위해 다른 한 쪽이 통제되어야만 하는 배타적 상호관계가 아니라 적절한 조화를 필요로 하는 상생관계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음양균형」 개념체계를 통해 삶의 수평적 조화와 화합을 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해명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개념체계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요구에 따라 선택된 상징체계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사는 한, 정식화된 개념체계는 개인이 획득해야만 하는 인식체계로서 삶 지배력을 갖는다. 그것은 우리 행위의 선·악을 결정하는 가치판단의 배경이 되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周易』

『春秋繁露』

『朱子語類』

그레이엄, A. C(저), 이창일(역), 『음양과 상관적 사유』, 수원: 청계, 2001.

김미영, 「陰」에 부과된 私적 특성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 - 주자학의 가족윤리를 중심으로, 『철학』 72, 한국철학회, 2001.

김세서리아, 「차이의 철학으로서의 음양론과 ‘차이-사이(관계짓기)’의 변증법」, 『시대와 철학』 17,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6.

김시천, 「도가와 여성성: 『노자』에서 ‘돌봄’의 개념은 가능한가」, 『한국여성철학』 8, 한국여성철학회, 2007.

김영식, 『주희의 자연철학』, 서울: 예문서원, 2005.

김혜숙, 『신음양론: 동아시아 문화논리의 해체와 재건』,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4.

김홍경, 『노자: 삶의 기술, 늙은이의 노래』, 서울: 들녘, 2003.

노양진, 『몸·언어·철학』, 파주: 서광사, 2009.

라이트, 알렉스(저), 김익현·김지연(역), 『분류의 역사』, 서울: 디지털미디어리서치, 2010.

- 레러, 조나(저), 최애리·안시연(역), 『프루스트는 신경과학자였다』, 서울: 지호, 2007.
- 레이코프, G·존슨, M(저), 노양진·나익주(역), 『삶으로서의 은유』(수정판), 서울: 박이정, 2006.
- 서영이, 「도덕화된 음·양의 역사」, 『범한철학』 77, 범한철학회, 2015.
- 안효성, 「음양이론의 상징적 상상력」, 『중국철학』 14, 중국철학회, 2006.
- 이석명, 『백서 노자: 백서본과 괄점본·왕필본의 텍스트 비교와 해석』, 서울: 창계, 2003.
- 이천승, 「음양감응을 통해 본 유교의 자연과 인간에 대한 이해」, 『동양철학연구』 54, 동양철학연구회, 2008.
- 마크 존슨(저), 노양진(역), 『마음 속의 몸: 의미, 상상력, 이성의 신체적 근거』,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0.
- 최영진, 「젠더에 대한 유교의 담론」, 『사회사상과 문화』 8, 동양사회사상학회, 2003.
- 최재목, 『노자』, 서울: 을유문화사, 2012.

\* 이 논문은 2019년 5월 24일에 투고되어,  
 2019년 6월 17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9년 7월 2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9년 7월 24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 Abstract

---

### The Governing Power of Conceptual System in Our Lives - A Dynamic Understudying of *Yin-Yang*\*

Seo, Youngyi\*\*

This study set out to review the governing power of a “conceptual system” in Our Lives and demonstrate that human consciousness and life could be embodied in completely different ways according to the different choices of conceptual systems. Specifically, The study would show that a conceptual system would play decisive roles in the formation of values and life patterns among members by reviewing the various types of *Yin-Yang* interpretations. It would also report on the potential risk of social and cultural categorization and ultimately raise a need to reconsider a valid conceptual system for “us now.”

In Northeast Asia, *Yin-Yang* have been regarded as concepts to explain all things that are physical, abstract, and spiritual. *Yin-Yang* have continuously been redefined according to values sought after by the society rather than holding an objective meaning themselves. A conceptual system chosen based on a social and cultural value system determines the consciousness and life structure of members in the society. ① The conceptual system of “raising Yang and lowering Yin (陽尊陰卑)” becomes a basis to justify the idea of discrimination between *Yin-Yang* status. It offers a decisive structure for the patriarchal categorization based on the clan rules. ② Lao-Tzu’s conceptual system of “raising Yin and valuing softness(尊陰貴柔)” offers a chance to focus on the validity of Yin that used to be covered up in the idea of “raising Yang and lowering Yin.” ③ The conceptual system of “balanced relations between *Yin-Yang* (陰陽均衡)” implies that the “*Yin-Yang*” structure should be read from the perspective of balance and harmony rather than exclusive relations. This conceptual system of “balanced relations between *Yin-Yang*” offers an opportunity to achieve horizontal balance and harmony in life.

If these attempts are successful, human beings will be able to have realistic reflections on the conceptual system that governs “here and now” and take into consideration a conceptual system that does not go against their organic conditions and is stable experientially.

**[Key Words]** sconceptual system, governing power, Yin, Yang

---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7S1A5B5A07062759).

\*\* Lecturer, Chonnam National University